

#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 등 '허점 투성'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과 장학금 지급, 운영재단 승진 인사 등이 엉터리로 이뤄져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제안법인 '남도장학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3건, 통보 2건 등 모두 9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남도장학회는 신규 입사자에 비해 계속 재사자(기존 입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해 결과적으로 신규 입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계속 입사자는 신청자 대비 선발인원이 2년 연속 100%를 넘긴 반면 신규 입사자는 합격률이 2016년 44.5%, 2017년 36.0%, 올 상반기 69.2%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규 입사자는 지원자 961명 중 340명만 선발된 반면 '계속 입사자 선발을 확대하라'는 재단이사장 지시에 따라 계속 입사자는 적격자로 분류된 467명보다 많은 504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사자 중 학숙 생활성적 등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당초 부적격자 가운데 37명이 추가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 정관에는 입사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했음에도 하위 규정을 확대해 대학원생 17명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사 후 휴학이나 조기 졸업 등으로 계속 입사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 14명을 적발했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정수해야 할 부담금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학금 선발기준이 바뀌고 신규 장학금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내부 결재로 정리한 점, 장학금 지급을 위한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채워야 함에도,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 재단 사무국이 별도 운영되면서 연간 8300만원의 월세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 사무국과 남도학숙을 통합해 예산을 줄일 것으로 권고했다.

결월 등으로 3급, 4급 직원 8명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승진시켜 결월을 유지하고 있는 점,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직무대리 기간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점도 부적절한 승진인사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2016년 12월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변경했을 때 요금이 절여지는 사실을 확

## 승진인사·재물조사 등 부정적

## 광주시 감사위, 9건 행정상 조치

인하고 한국전력에 변경을 신청, 이듬해 7월부터 12월까지 2200만원(41% 수준, 연간 45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은 전국 우수 사

례로 주목받았다.

이 사례는 전국의 7개 학숙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전파됐고, 감사위는 예산성과금 신청과 함께 관련 관

계자들에게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1994년 제1 학숙(동작관), 올해 2월 제2 학숙(은평관)을 개관했으며,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 등 1454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강동열차 타는 관광객 2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평창효석문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강동열차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 '인쇄의 길' 확장 광주시 vs 문화전당 2년째 법정서 줄다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광주시와 전당 측이 2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일 광주지법과 광주시·문화전당에 따르면 전당(원고·국가) 측은 지난 2016년 광주시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개하라는 것이다.

같은 해 8월16일 시작된 재판은 이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당시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문화전당 인근 도로(문화전당~진대병원 앞) 605m를 폭 25m(기준 15m)로 확장·개설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이에 전당 측은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조건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전당 측은 향후 신축 공사 과정에 주변 도로 390m를 확장했다. 하지만 인쇄의 거리' 쪽 215m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과 2015년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

주차장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남은 도로 215m에 대한 확장·개설 주제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2016년에도 '인쇄의 길' 215m 한 건만을 가지고 변경 심의를 다시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미 의결된 사안인 만큼 동일한 사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인쇄의 길'에 대한 구체적 추진사항이 없으며 전당 측에 보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보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전당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여 달라는 주장이다. 공사 과정이나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당 측은 최초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이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또 사업의 특성 상 공사 과정 속 사정 변경이 있기 마련인 만큼 변경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당 측은 전당 총사업비 중 일부를 215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개설이 가능한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복합'의 사업이다. 이 구간은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으며, 이에 해당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요청도 해 봤지만 기재부가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준정 기자

## 시리아수도 인근 軍공항서 잇단 폭발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알 마제에서 1일(현지시간) 대형 폭발이 잇달아 발생했다.

알마제는 대규모 군 공항이 있는 군사요충지로, 해외 공관과 국방 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측근들의 저택이 많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CNN은 1일(현지시간) 친 정부 언론매체인 알 마아딘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알 마제 군 공항을 수발의 미사일로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리아 국영매체 사나통신과 TV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 마제 군 공항이 이스라엘 전투기에 의해 폭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발음에 대해서는 공항 근처에 있는 탄약창고에서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주민은 CNN에 군 공항 쪽에서 4차례의 폭발음이 잇달아 들렸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공습이 벌어진 게 확실하다. 폭발음이 들렸고 소방차 소리도 들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에는 밤하늘에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폭발과 불길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 러시아 항공기 소치공항서 착륙중 화재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도시 소치 공항에서 1일(현지시간) 170명이 탑승한 러시아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 RT 등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3시에 소치에 도착한 유테이르 항공 소속 보잉 737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했고, 왼쪽 날개가 활주로 윗다리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164명과 승무원 6명을 타고 있었다.

보건 당국은 이번 사고로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명이 다쳤고,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당국과 항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美, 불법 이민자 자녀 수백명 아직도 구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 폐지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백 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원은 분리된 이민 가족들을 7월26일까지 재결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 법정은 7월26일까지 재결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 법정기록에 따르면 정부 관할 이주 아동 수용소에서 보호 중인 497명을 비롯해 수백 명의 아동들이 여전히 부모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CNN은 보도했다.

5세 미만의 아동도 22명에 달한다. 그들 중 8명의 부모는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격리된 이민자 자녀와 부모의 재회를 위해 대리 소송을 진행해 온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과정이 매우 느리고 힘들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정부 관할 이주 아동 수용소에 구금된 아동의 부모 중 322명이 추방된 상태라고 최근 밝혔으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방된 부모 대부분과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으나, ACLU는 많은 부모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美 버스-트레일러 정면충돌 사망자 7명

지난달 30일 뉴멕시코주 토레우 인근 애리조나주와의 접경 지역 주간(州間)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트레일러 간 정면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7명으로 늘었다고 뉴멕시코주 당국이 밝혔다.

사망자 외에도 많은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부상자 수가 정확히 몇명인지, 또 이들의 부상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잠정적인 보고에 따르면 대형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트레일러 정면 충돌했다고 뉴멕시코주 경찰은 말했다.

당국은 앞서 사망자 수가 최소 4명이라고 말했었다.

사고를 당한 버스는 뉴멕시코주 주도 앨버커키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가던 중이었다.

그레이하운드측은 사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여의 임신 양산시에도.

국가건강검진